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9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 환우를 위한 기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찬 430)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21:1-14

주 음성 외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주여 뜻대로(찬 549)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0월의 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환우를 위한 어떤 기도제 목들이라도 교역자에게 전달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천위원회**가 오늘(10/17) 예배 후에 지하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4. **중보기도팀**이 10월 31일에 새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주애, 양명철)
5. **삶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6. **11월부터 1부예배(9시)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 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101.5 / HD Radio FM 93.5-4 토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 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직분자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교회의 직분자 특히 장로 선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피택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중론은 “성령충만하여 신앙 생활을 잘하면서, 가정에 충실하며, 삶의 현장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선출되어야 합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이상적 대답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장로는 부지런한 사람, 학력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저런 기준을 놓고 장로를 선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기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저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한울림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상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주일성수와 헌금생활하는 사람, 삶공부 1단계를 수료한 사람,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정도 기준은 사실 직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로를 공천하고 선출하여야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부지런한 사람, 학력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된다”는 기준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예전에 한국의 한 대형교회에 다니던 군장성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았던 어머니의 묘비에 ‘OOO권사지묘’라고 쓰고 싶었던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거금의 헌금을 내고 어머니가 권사를 추서(追紼)받게 됩니다. 추서란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훈장이나 품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직분이 지위로 생각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결코 지위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말은 자(일꾼)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처럼 **섬김에 초점을 두고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를 선출하는데 “성실성, 재력, 학력” 등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탄받아야 할 기준이 아닙니다.

직분자, 장로로 피택되는 사람은 적어도 공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석함으로써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성실성), 물질로 헌신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하며(재력),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학력). 적어도 이 중에 한 가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이 모함받는 이유는 이 기준을 절대화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